

## 조선대 사상 최대 개혁... 실천이 관건



**위기의 조선대** 11일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2단계 평가를 앞둔 조선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에 들지 못해 이달 중 2단계 평가를 받게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자율개선대학 제외 긴급 처방 학사·행정 조직 규모 30% 감축 교육계 안팎 “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빠름이 노력해야”

조선대가 학사·행정 조직 규모 30%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2단계 평가를 받게된 상황에서 나온 긴급처방이다.

지역에서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개혁이 번번이 구호에 그쳐 조선대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11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의 대원칙’과 대학 기본역량 2단계 평가서류 제출 상황 등을 설명했다. 교육부 등은 이를 토대로 이달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평가에서 최

하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조선대가 교수총회와 교무위원회회의를 거쳐 확정된 5개 구조개혁 대원칙은 ▲학문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모집단위의 계열화 및 광역화 ▲기초학문단위 보호 ▲단과대 및 계열별 책임경영제 시행 ▲병원·치과병원 임상 교원 인건비 80% 부담(재정적 해소 방안) 등이다.

조선대는 이를 토대로 조직규모를 30%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제출한 교육부 등에 제출한 대학 기본역량 2단계 평가서류에도 이런 대원칙이 포함됐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합의한 대원칙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교수평의회, 총학생

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핵심 단체들이 모두 합의한 것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대는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에 발목을 잡혀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조선대의 이번 개혁안에 구체적 실천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원 정년에 따른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 기존 17개 학과 단과대학 85개 학과를 유사 전공별로 통합하면서도 교직원 등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문제는 대학 기본역량 2단계 평가에서는 대학 운영의 건전성,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인데 조선대는 현행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 조선대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재정건전

성을 높이고 2단계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최종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선대가 이번 ‘골든타임’까지 놓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는 “조선대 셉트개혁은 한계에 달했다”는 뼈아픈 진단을 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율 개혁에 실패해 결국 외부적 충격에 의해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빠름이 자성과 희생 없이 공동체의 운명을 기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순히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를 넘어 조선대의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성장동력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립 이래 최대 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행복·시민·자연·희망 ... 민선 7기 슬로건 확 바뀌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목표도 새롭게 정비됐다.

‘사람’, ‘힐링’, ‘소통’ 등이 주를 이뤘던 민선 6기와는 달리 민선 7기는 ‘행복’, ‘시민’, ‘자연’, ‘희망’이 대세로 떠올랐다. 4년 전 민선 6기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탓에 힐링·소통 등의 메시지가 많았다.

광주일보가 11일 민선 7기 광주와 전남지역 27개 자치단체의 사·군·구청 목표를 분석한 결과,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광주 4개 자치구(동·남·북·광산), 전남 5개 군(보성·화순·강진·무안·영광)에서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동체를 뜻하는 ‘함께’라는 단어도 눈에 띄었다. 여수·순천·나주시를 비롯해 전남 기초단체에서만 무려 7곳이 ‘시민과 함께’ 또는 ‘군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생명·생태·자연 등 전남의 강점을 살린 구호도 많았다. 전남도의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대표적이다. 담양군은 ‘대숲 맑은 생태도시’, 곡성군은 ‘자연 속의 가족마을’, 구례군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장흥군은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성군은 ‘엘로우시티’를 표방했다. 순천과 광양, 고흥군은 ‘새로운 미래·도약을 약속했고, 해남군은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강조했다. 김중식 목표시장은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표시대’를 천명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내세웠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내걸었다. 구도

### ■민선7기 전남 지방자치단체 사·군정 목표

| 자치체 | 목표                   |
|-----|----------------------|
| 전남도 | 생명의 땅, 으뜸 전남         |
| 목포시 |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표시대  |
| 여수시 |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
| 순천시 |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
| 나주시 |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
| 광양시 |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
| 담양군 | 대숲 맑은 생태도시           |
| 곡성군 |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        |
| 구례군 |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
| 고흥군 | 새로운 미래를 날다           |
| 보성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 화순군 |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
| 장흥군 |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
| 강진군 | 더불어 행복한 강진           |
| 해남군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 영암군 |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
| 무안군 |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 |
| 함평군 |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     |
| 영광군 |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
| 장성군 | 꿈과 희망이 있는 엘로우시티 장성   |
| 완도군 |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
| 진도군 | 희망찬 군민 반영하는 진도       |
| 신안군 | 희망이 샘솟는 신안           |

심을 재생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내걸었고, 김병래 남구청장은 ‘활기찬 경제 도시와 행복한 복지 남구’를 각각 슬로건으로 정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중심 혁신 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박정욱·김용희 기자 jwpark@

## 광주시의회 파행 속 김동찬 의장 선출

### ‘반쪽 의장단’ 법적 소송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자리싸움’으로 파행을 겪던 광주시의회가 사흘만에 ‘반쪽 짜리’ 의장단을 선출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속개해 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동찬(북구 5) 의원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전체 의원 23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3명이 김동찬 의원에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 1명은 기권했다.

또 1부의장에는 장재성(서구1) 의원

을 2부의장에는 임미란(남구3) 의원을 선출했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이날 전체 의원 중 반대파 의원 9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신임 의장단이 선출돼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의장 측 지지 의원들이 지난 9~10일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 의원이 의장단·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김동찬 의원 측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본회의를 연이어 정회한 데 반발해 임시 의장 교체라는 조강수를 두면서 법적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태국, 13명 전원 구조 ‘동굴의 기적’

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가 17일간의 ‘동굴 드라마’를 기적으로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2면>

태국 내이비실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동굴 안에 갇혀있던

12명의 소년과 코치의 구조 소식을 전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19명의 다국적 구조팀을 투입해 사흘째 구조작전을 벌였고, 동굴에 남아 있던 5명의 마지막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해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던 역가본 찬파원(25) 축구팀 코치는 끝까지 동굴 안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친 뒤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13명은 17일 만에 전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posco

## 포스코가 ‘러브레터(Love Letter)’를 기다립니다

사랑이 담긴 쓴 소리부터 향후 발전방안까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미래 50년을 위해 포스코가 고쳐야 할 것, 발전시켜야 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Love Letter’에 담아 보내 주세요.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보내는 방법]

이메일(loveletter@posco.com) 또는 포스코 및 그룹사 홈페이지 ‘Love Letter’참여  
• 접수 기간: 9월 말까지  
• 문의처: 포스코경영연구원(02-3457-8265/8266)